

□ '한총련 대의원대회' 경찰측 온건대응의 실제

앞에선 풀고 뒤편 묶는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한 해에 한번 각 대학단과대학 학생회장 이상의 간부들이 모여 한총련 의장을 선출하고 한 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 대의원대회는 사뭇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는데 작년 연대사태이후 계속 재기되고 있는 한총련 개혁여론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경찰측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해 전보다 직접적으로 저지할 것을 밝혔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지난 2일 '친북 이적성을 배제하고 적법 평화적으로 대회가 열리면 개최를 막지는 않겠다'며 지난 달 31일 이번 대회에 대해 행사장 사전수색협조, 향후 폭력시위 포기 등 6개 내용을 담고 있는 요구조건을 전달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총련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시위가 아닌 목소리를 내기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일 뿐이다'며 '대의원대회는 이념투쟁을 떠나 내부행사의 성격이 짙다'고 요구안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다. 그러나 행사전날인 3일에는 한총련 간부 16명에 대한 사전수색영장과 전남대, 조선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한총련 관계자는 서명을 내고 "대회중 전경들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전남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상태"라며 "사전봉쇄는 안했어도 행사도중 언제라도 대회를 해산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 말했다.

행사당일엔 전남대 인근에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적은 수의 전경이 배치되었고 타학교 학생들의 출입은 허가하였다. 결국 행사참여 학생들은 대회첫날 전경들과 약간의 물리적 충돌을 제외하곤 특별한 대치없이 대회장소인 전남대에 진입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전경의 검문검색에 대해 한총련측은 '터미널과 광주역을 거쳐 전남대 교문까지 오려면 3번 이상의 검문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천봉쇄를 기도한 것이다'며 '경찰측이 이번 대회와 관련해 발표한 의견들과 상반되는 행동이다'라 밝혔다.

(김동욱 기자)

인터뷰

□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전남대)교



지난 4일 대의원 개막식에서 당선된 강위원 한총련 의장은 5일 전남대 임시 중앙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총련 대변인 정영훈 한양대 총학생회장과 함께 학생기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당선 소감은 당선이 되기전이나 된 후나 똑같이 마음이 무겁다. 임시

간부활동 혁신 통해 변화

제2대당헌 한상근 열사의 분신과 투쟁을 열사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청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또한 김영삼정권의 탄압을 비롯해 한총련 탈퇴를 선언하는 등 어려운 시기라 마음이 무겁다.

임시의장으로서 미리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유리했다는 생각이 든다.

2개월 동안 임시의장직을 맡았지만 좋은 평가가 이뤄졌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의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여유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총련에서 간부인문준제와 관련해 비민주성을 거론하는 등 다양한 비판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수렴할 생각인가

통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공식적인 제기가 아니므로 중

앙상임위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선문제의 경우 2차 중앙위에서 마무리되었다. 오는 전체대의원대회에서 거론된다면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총련 탈퇴에 대한 생각은

간과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비운동권의 이러한 조직적인 모습은 목적의식적 성격이 짙다는 생각이 든다. 시기적으로 대의원대회에 있는 날 한총련 탈퇴를 선언하는 것은 심중적으로 배후세력이 있음을 강하게 내뽐고 있다. 아마 출범식쯤에서 한총련과 별도로 다른 조직을 결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한다.

한총련 의장으로서 한총련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총련의 변화라는 것이 노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간부가 어떻게 합의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혁신과 변화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올해 한총련의 차별화는 이처럼 간부활동의 혁신이라고 할 것이다. 의장의 눈이 아니라 과학혁명의 눈으로 구체적인 간부론을 지시할 것이다. 기층에서 한총련의 변화가 감지될 것이다.

한총련의 97년 최대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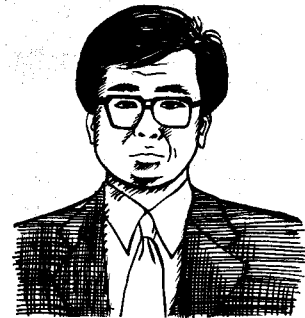
두가지이다. 하나는 한총련 내부의 확대로서 한총련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사안에도 지속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한총련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 계층간 권력관계에 큰 단결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강단시론

이 호 창

<사회대 경영>



날짜로는 벌써 4월에 접어들고 있긴한 겨울 외투를 시원스레 벗어 던져 가볍게 걷는 바람이 분다. 쌀쌀하기만 하던 캠퍼스도 어느덧 새사람을 맞으며 흥겨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세상의 겨울은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세간의 마음들을 스산하게 하지만 캠퍼스에서 만나는 우리의 봄은 언제나 신선하고 즐거운 설레이었다.

유리당한 우리의 안식처

여태까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는 적절히 타협해 왔으며 심지어 서로의 부정이 폭로되는 과정에서조차 서로를 눈감아 주며 부패한 결속을 다지는 공범자들의 패거리 의제가 도원의 결의로 가장되는 경우를 여기 저기서 수없이 보아왔다. 최근까지 시정에 폭로, 전개되고 있는 그 추한 집단행동과 부패의식의 고리로부터 그 누가 떼어내고 자유로운 제 3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마는 모두들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인 듯 밖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애써 자신의 성찰을 외면하는 외로운 겁쟁이가 되가는 것을 보면서 올봄은 유난히도 더 쓸쓸하고 보디게 다가올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유리당한 은밀한 안식처

개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였던 주위의 사물들이 갑자기 어색해 지고 어쩔지 자기 자리가 아닌듯 불안해 하며 서로 마주보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요란한 구식 적색구호에 찌들어 온 복도벽에는 천박한 화장기의 난문들이 호객하며 어지럽게 달려들고 소리내어 나부끼는 현수막은 틈만 보이면 눈으로 뛰어 들기세로 시야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해 버린다. 보는 이가 청하는 광고에서 지나가는 누구라도 붙잡아 그 눈에 기어오르려 한다는 절박한 심정의 광고로 전환된 대학의 홍보문화는 실로 캠퍼스를 초토화하기에 충분하다. 본시 자기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바위돌의 이마에도, 우리를 늘 지켜보아 왔던 큰키나무 허리에도, 유난히 바쁘게 오가는 길의 질펀한 등쪽에도, 좁은 계단의 측면에도 여지없이 붙어 있는 잔인한 광고들은 이들에 가져져 뒤편에 물러난 예전 캠퍼스의 오리지널 멤버들과 청담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소박한 심정마저 허락치 않는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승용차의 교내 주차문제는 급기야 호기를 가장한 치졸한 익명의 행패를 초래하여 이미 광고에 의해 유리당한 벽면은 또 다시 난자당하고야 말았다. 이것은 학기초마다 되풀이 되어 지출되는 페인팅과 청소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캠퍼스와의 소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자

를 달리 가지고 있다. 캠퍼스 아/ 듣기만 하여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오르는가? 캠퍼스의 하늘은 때로 우리의 여려진 가슴을 어루만져 담담하게 만들고 캠퍼스의 대지는 우리의 다리를 떠 받쳐 의지를 세운다. 어디 그뿐인가? 매일 그 자리에 그대로인 멋있는 나무와 바위돌마저도 변치않는 소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요한 눈길을 주며 수없이 맑고 다니던 무던한 길도 자신의 등을 깔고 우리를 포근히 인도한다. 사회과학대학 앞의 풀다방도 그 촌스런 이름을 마다하지 않고 여름이면 등나무 모자를 쓰고 우리를 안아주며 가을이면 유취한 학생주점에 매상올리는 얼굴마담을 자처한다. 이렇듯 어디서 꾸어다 놓은 듯 어색해 게만 보이는 조형물이나 건축물조차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풀뿌리나 돌맹이 하나도 그것이 캠퍼스를 위해 애초에 거기 있어야 했던 것 처럼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멤버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서로 교분하고 서로를 배우며 우리만의 은밀한 지적 안식을 취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캠퍼스의 절묘한 조화현상이

박한 교감을 통해 얻는 조용한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가슴의 문제일 것이다.

캠퍼스 아름다움 되찾아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 이번 봄에는 우리 다함께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왔던 풀, 나무, 언덕, 건물, 길과 한동안 껴있던 정담을 나누며 아름다운 캠퍼스와 함께 숨쉬자. 이제 캠퍼스의 봄바람은 더이상 학교밖의 봄바람이 아니라 캠퍼스의 사물은 학교 밖의 사물들과 다르다.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서로를 사랑케하는 캠퍼스의 위대한 힘에 자신을 맡겨 다시 조용한 지적 안식을 즐기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드는 방법은 우스우리만치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다. 광고를 떼어내자. 현수막을 제거해 보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 교실에서는 금연하자. 정한 위치에 주차하자. 우리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자연스럽게 편안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

안기부, 불법연행 공식 인정

현장취재

□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형찬 3차 공판

판사의 판결이 나기만을 기다리던 김형찬군 아버지의 표정은 재판에 대한 열려와 피로로 굳어 있었다.

"재판을 연기한다" 판사의 선고후 김군의 아버지 김병태씨의 모습은 기자에게 깊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재판에서만은 해결이 되기를 기대했던 김씨에게 판사의 선고는 큰 허무감으로 다가서는 듯 하다.

안기부 고문수사로 인해 분신을 했던 김형찬(유전 4)군의 손해배상청구와 고문수사 판 처벌에 대한 3차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정에는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의 민사재판을 기다리며 앉아있다. 판사가 들어와 착석한 후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신속히 내려졌고 재판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법정을 빠져나가 법정은 약간 소란해진다.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은 두 사나이의 작은 체구가 당차보이는 여자가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앞에 섰다. 판사는 사건내용을 읽은 후 양측 변호사들에게 사건에 대한 변론을 요청했다.

새로 선임된 김군측 노정희 변호사는 "안기부측에서 안기부요원 4명의 개인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보안상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특정피고인 선정에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특정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소송자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검찰수사가 어느정도 진척된 후 재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양측 변호사에게 재판연기의 찬성여부를 물었다.

한편 국가 안기부측 변호사는 판사의 "김군 상해중거사건을 인정하는가"라는 물음에 "중거사건은 인정한다"라고 답변하여 안기부요원의 불법연행과 폭행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양측 변호사가 재판연기에 동의하면서 20여분 동안의 3차공판은 끝났다.

법정을 나온 후 김군의 아버지는 한탄하며 한숨을 지은다.

"진실규명을 위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날로 불어나는 엄청난 병원비가 걱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하물에선 무심한 비만 내렸다.

(김용운 기자)

사회단신

참여연대 청년지도자프로그램

참여연대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미래를 여는 청년지도자 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참여사회 아카데미'의 97봄학기 강좌의 하나이다.

구분	주 제	강 사
4월 7일	권위주의 해체와 시민사회	연세대 김호기(사회)교수
4월 14일	일상공간과 풀뿌리운동	카톨릭대 이영자(사회)교수
4월 21일	차세대 활동가의 상	불문터21 이강현 소장
4월 28일	세계의 New Generation	청년정보문화센터 우상호 전소장

正道경영·초우량 LG

난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늦은 오후, 회사 엘리베이터 안이었어. 돌만 있기
어색해 빙 둘러보다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지. 그렇게
찾아헤매던 벤처사업 아이디어가 거기 있었던 거야.
원격 감시 시스템의 원리를 응용해 바로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지. 아이디어만 좋으면 지금은 회사에서 대대주고
잘 될 땐 플러스 알파까지 보장해준다는 벤처사업!
그날 바로 동료 4명과 Dream Team을 만들었고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지. 결국, 도로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한 교통정보사업 아이디어로, 와우!
우리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가가 되고만거야~

LG 벤처사업 제1팀, 교통정보사업팀 진서용 대리(LG산전 소속)

꿈과 아이디어가 만나면 그것은 벤처!

LG는 자금과 기술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젊은 LG인의 창립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경제에 있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사내 벤처(Venture)사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G / 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